

# 기대승 선비정신 체험한다...월봉서원 복합관 건립



광주시 광산구 광곡마을에 들어설 예정인 월봉서원 체험복합관 조감도.

### 시, 광산구에 2026년 준공...강의실·연수시설·다도 체험실 안동 도산서원 연수원 연계...영·호남 전통문화 교류도 예정

광주시가 고봉 기대승 선생의 선비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월봉서원 체험 복합관 조성에 나선다. 광주시는 16일 “고봉(高峯) 기대승(1527~1572) 선생의 선비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도심 속 서원 스테이 ‘월봉서원 체험복합관’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월봉서원이 있는 광산구 광곡마을에 들어서는 월봉서원 체험복합관은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1986㎡ 규모로, 오는 24일 착공해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와 팔작지붕의 전통 한옥형 구조로, 전통 문화 예술과 학술을 토론했고 강학하는 중·소강의실, 40~50명을 수용하는 연수시설, 다도를 체험하는 육예실 등 다목적 공간으로 구성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며, 기대승 선생의 선비정신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민주 인권 평화 정신을 연계해 광주에 머무르면서 전통 선비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광주시는 퇴계 이황을 배향하는 안동의 도산서원 연수원과 연계해 영·호남의 전통 역사 문화 교류에 나설

계획이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7일 월봉서원 교육체험관에서 월봉서원 광곡마을 주민들과 고봉 기대승 선생 문중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월봉서원 체험복합관은 광곡마을 주민의 적극적 협조와 기대승 선생 문중에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착공에 이르게 됐다”며 “국내외 방문객이 장기 체류하면서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호남의 대표 힐링 여행지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봉 기대승은 당대 최고 유학자인 퇴계 이황과 서신 교환으로 조선 유학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칠논변(四七論辨)을 전개한 호남 대표 유학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노후보일러→친환경보일러로 바꾸세요”

### 저소득층·취약계층 1400세대에 교체비용 60만원씩 지원 대기오염 저감·에너지효율 향상...난방비 연 44만원 절약

광주시는 “저소득층·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등 대기환경 개선사업으로, 8억4000만원을 투입해 친환경 보일러 1400대의 교체 비용(각 6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노후보일러 대비 대기오염 물질의 주범인 질소산화물(NOx) 발생량이 8배 낮고 에너지 효율은 12% 높아 난방비를 연간 최대 44만원 가량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친환경 보일러는 한국환경산

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경우 목재연료·연탄·기름보일러를 가정용 보일러로 인증받은 LPG보일러로 교체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연금 수급자·한부모가족 등)과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 사회복지시설(아동·노인·장애인) 등이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보일러 설치(교체)를 원하는 시민은 관할 구청 누리집에서 공고 확인한 후 담당 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발송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에코스퀘어(<http://ecosq.or.kr/boile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광주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91억원을 투입, 총 5만 9215대를 보급해 연간 온실가스 4700톤, 질소산화물 210톤을 감축하는 효과를 거뒀다. 나병준 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난방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통한 환경서비스 제공은 물론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일석 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가정에서부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실천에 동참해주시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해빙기 공사장 등 안전점검 시, 4월 15일까지 민·관 합동

광주시는 “4월 15일까지 봄철 해빙기 대비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건설공사장·재난취약시설·급경사지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안전점검은 광주시, 자치구, 전문기관과 함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점검대상은 지역 내 토목 및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공사장 70개소와 급경사지·옹벽·절토사면 및 산사태 취약지역 등 404개소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사장 주변 침하 여부, 흠막이 등 가설구조물, 주변 축대 등 변형 여부, 구조물 균열·침하 발생 여부, 비탈면 균열·배부름 등 변형 여부, 안전시설 설치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현장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조치가 어려운 부분은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할 방침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산업현장 ‘안전보건지킴이’ 뽑는다

### 광주시 18~19일...산업안전분야 경력·자격자 대상

광주시는 “18~19일 지역 건설현장 안전점검과 산재 취약사업장의 재해 예방 활동을 맡게 될 ‘안전보건지킴이’를 공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안전보건지킴이는 지역 건설현장 등을 방문해 산업안전 규정 준수, 개인보호구 착용, 계절별 현장 안전수칙 준수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안전시설에 대한 개선 유도활동과 함께 자율적인 안전 문화 홍보 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안전보건지킴이 자격요건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주소를 둔 만 55세 이상 시민 중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6개월 이상 관련 경력이 있어야 한다. 모집인원은 총 6명이다. 안전보건지킴이로 선정되면 3월부터 12월까지 3인 1조로 건설현장 등 사고 가능성이 높은

산업현장을 찾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과 계도를 진행한다. 특히 고위험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과도 협력해 합동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시 안전보건지킴이는 지난해 지역 공공발주공사와 민간 건설현장에 대해 총 563회에 걸쳐 925곳을 현장 점검해 안전수칙 미준수 사례 1050건을 적발했다. 이부호 광주시 안전정책관은 “산업재해는 재해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 및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로 여행오세요 광주관광공사는 지난 15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광주FC 홈 개막전’을 시작으로 2025년 광주 방문의 해 홍보전에 나서고 있다. <광주관광공사 제공>

## 광주시, 임산부 직장맘 패키지 지원

### 의자·직장생활 꾸러미 등...오늘부터 선착순

광주시는 16일 “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임산부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맘 편한 패키지 지원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지역 사회적기업이 제조한 임산부 의자·직장생활 꾸러미를 지원하고, 모·부성 보호 관련 무료 노무 상담을 한다. 임산부 의자는 신청일부터 출산휴가 시작 전까지 무료 대여하며 업체에서 설치부터 수거까지 관리해 준다. 임산부 체형에 맞춰 등판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 180도까지 뒤로 젖힐 수 있어서 간이침대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근무 시간은 물론 휴게공간이 없는 사업장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임산부 직장맘에게 인기 있는 지원품이다. 직장생활 꾸러미는 임신기간 직장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임산부 맞춤 물품으로 꾸러졌다. 해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구성품을 변경

하고 있으며, 올해는 임산부 직장맘들이 추천한 압박스타킹을 추가해 총 70개의 꾸러미를 지원할 예정이다. 임산부 근로조건 개선 및 출산·육아 휴직 관련 상담을 센터노무사가 전화나 온라인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 소재 300인 미만 중소기업,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광주지역 기업 기관이다. 본사가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광주시사업장의 고용인원이 300인 미만이면 가능하다. 신청은 17일 오후 1시부터 이메일(lee0428@korea.kr)로 선착순이다. 윤건열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는 임산부 직장맘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의 양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사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윤 박사

##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http://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로 36

[www.kwangshin.ac.kr](http://www.kwangshin.ac.kr)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